

# 아랍民族主義의 展開過程과 特徵에 관한 考察

玄 先 禮<sup>\*</sup>

## I. 머릿말

近世 以後 서구에서 발전·고취되어 온 民族主義는 프랑스 大革命과 러시아 革命 그리고, 제1·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全世界로 확산되어 그 地域의 特性和 結合, 정착하게 되었다.

제3세계 지역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서구의 식민지 제국주의(colonial imperialism)에 대한 식민지 민족주의라는 性格으로 정착되어 獨立 쟁취를 위한 原動力이 되었을 뿐 아니라, 獨立 쟁취후에도 새로운 出發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써 제3세계의 精神的·思想的 중심점이 되었다. 제3세계 民族主義는 그 地域의 特徵에 따라서 아시아民族主義, 아프리카民族主義, 라틴아메리카民族主義, 아랍民族主義로 구별 되어진다.<sup>1)</sup>

이중에서 특히 아랍民族主義는 아랍세계의 地理的 위치,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해 주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外세의 침입에서 부터 自身들을 보호하는 原動力이 되었고, 2차대전 이후

※이 논문은 '87년도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졸업논문의 하나이며, 필자는 현재 교사로 재직중이다.

1) 서재만, 「제3세계연구(I)」(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 48.

1948년의 Palestina전쟁, 1952년의 이집트혁명, 1956의 suez운하 국유화,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전쟁과 現在도 계속되고 있는 이락-이란전쟁 등, 계속되어진 분쟁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아랍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랍民族主義라 하겠다.<sup>2)</sup>

그러므로, 아랍세계의 狀況을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아랍民族主義에 대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經濟的인 진출과 石油資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나은 經濟的인 外交를 위해서는 아랍세계에 대한 충분한 理解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아랍民族主義를 앞으로써 아랍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아랍의 現實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자 함을 目的으로 하며,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아랍民族主義의 展開過程과 特徵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 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그 전개과정을 考察함에 있어서, 제1차대전前後와 2차대전 後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제1차대전前後의 展開과정을 보면 民族自覺운동과 反오스만독립운동, 그리고, 反西方운동의 樣相을 띠는데, 그 전환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다음으로는 2차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아랍民族主義의 과제가 된 民族統合과 그 추진력인 反시오니즘운동에 대해서 살펴 본 後, 마지막으로 아랍民族主義의 特徵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以上の 순서로 展開되어 질 本稿는 기존 研究 論文과 문헌, 기타자료의 再 解析을 통해서 考察되어 질 것이다.

2) 金鍾表, "아랍民族主義의 形成과 發展", 「법학논총」 제11집,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1977. p. 219.

## II. 제1차세계대전 前後의 樣相

### 1. 民族自覺 運動

16세기 이래 오스만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랍인에게 民族意識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된 것은 178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원정이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침공으로 프랑스革命思想과 自由主義思想이 전파되었고, 이때 도입된 서구文物 특히 서구의 인쇄술은 아랍語와 아랍文化를 발달시키는 결과로써 서구思想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民族각성이 일어났다.<sup>3)</sup>

이와같은 서구文化의 충격으로 아랍인들은 과거 이슬람아래 形成되었던 民族의 우월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고, 서구 기독교文明에 대해 예전의 융성했던 이슬람文明의 부활을 위한 努力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아랍民族主義 운동은 民族自覺 운동의 性格을 띠었으나 그 樣態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었는데, 특히 suez운하를 中心으로 東·西 間에는 크게 다른 樣態를 나타내고 있다.

suez운하以東의 아랍권에서는 주로 敎育과 선교活動을 통한 民族的 自覺의 고양운동이었던 반면에, suez운하以面에서는 군사력에 의한 오스만제국으로부터의 이탈운동으로 나타났다. 前者의 경우 이집트의 무함마드·알리의 분리운동이 그 대표적인 例가 되며, 後者の 경우는 宗教的인 각성운동으로 와하비운동과 시리아를 中心으로 한 愛鄉運動이 그 대표적인 例가 된다<sup>4)</sup>

#### 가. 무함마드·알리의 분리 운동

나폴레옹의 이집트원정으로 1805년 이집트 총독이 된 무함마드·알리(Muhammad Ali; 1769~1849)는 프랑스思想의 영향을 받아 이집트를 中心으로 한

3) 홍순남, "아랍民族主義와 統合思想", 「단원」14, 단국대학교 1984, p. 67.

4) 서재만, op. cit., p. 56 재인용

이슬람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여 여러가지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sup>5)</sup>

나폴레옹침입의 충격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 그는 먼저 서구식 장비와 군사교육을 받은 군대의 확보를 위해서, 이집트 土着農民 出身으로 프랑스軍을 모방한 신식군대인 나자미예(Nizamiye)를 설립함으로써 아랍인의 民族적 자부심과 자각을 갖게 하는 한편, 프랑스군사의 고문단 초치와 서구식 병기 및 서구식 기술의 도입으로 훈련시키고 무장했다. 이외에도 이집트인의 유럽유학장려, 농업기술의 도입, 영농과 관개方法의 개선, 새租稅制度의 창안 조세징수원제도의 수립, 사기업의 育成, 유럽상인과 산업기술자의 유치 등의 행정제도의 개편과 각급 學校설립, 교과서 등의 구주서적, 번역 출판 장려에 힘썼다.<sup>6)</sup>

이러한 강화된 군사력과 내부개혁으로 강력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그는 오스만제국이 서구열강의 간섭과 팽창 압력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어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자 오스만제국으로 부터 이탈하기 위한 反오스만 군사 활동을 펴게 되었다.

결국, 反오스만 군사 활동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집트의 총독의 세습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오스만제국의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세기간의 터어키인과 아랍인의 이슬람信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umma)로 부터 이탈하여 近世 以後 최초로 半獨立 아랍왕조를 세우게 되었다.<sup>7)</sup>

무함마드·알리의 近代化 개혁사업은 광범위한 제도의 개혁과 青年엘리트의 育成으로 아랍인의 民族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구文物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이집트는 서구 유럽文物의 아랍 유입로가 되어 後의 아랍 民族主義운동을 위한 重要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sup>8)</sup>

5) 홍순남, op. cit., p. 67.

6) 서체만, op. cit., p. 57

7) Ibid., pp. 57~58, 재인용

8) Ibid., pp. 58, 재인용

나. 와하비 운동<sup>9)</sup>

오스만제국이 팽창하면서, 이슬람공동체는 점차로 세속화되어 갔고, 개방 정책으로 서구文明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 서구文明의 유입은 앞서 살펴본 이집트에서 처럼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서구文明의 유입에 대해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이슬람세계를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와하비운동은 순수한 이슬람으로 복귀함으로써 이슬람을 부흥시키고자 한 宗教運動으로 사우디·아라비아出身인 무함마드 이븐 알리·와합(Muhammad ibn Abd-al-wahhab; 1703~179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이슬람부흥을 위해서는 이슬람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아라비아 사막에는 이슬람宗教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그 순수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도 엄격한 反신비주의적 淸교도 교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淸教徒 教理는 宗教의 生活에서 뿐만 아니라, 個人의 生活에 있어서도 要求되어진다.

한편 와합의 추종세력이 커지면서 와합의 教理도 이슬람 社會를 정화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이슬람의 확산과정과 같은 聖戰에 의한 정복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아라비아반도의 동부와 중부를 장악하여 실로 새왕국을 이루었다.

非아랍이슬람세력인 오스만터키가 아랍地畵을 지배하면서 異教徒의 宗教生活과 그들의 풍습을 인정하는 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이슬람의 순수성은 이미 유지되기 어려워기 때문에 와하비운동세력과 오스만제국의 충돌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결국, 와하비운동은 초기에는 다분히 宗教的 運動이었으나, 점차 그세력을 확장하면서 反오스만 政治的 獨立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다. 시리아의 民族自覺운동

시리아에서의 民族自覺운동은 기독교 아랍인에 의해서 始作되었다. 시리아

9) Ibid., pp. 58~62. 참조

는 이집트의 近代化 영향으로 서구자본주의화가 가장 빨리 되었고, 가장 많았고, 文化·經濟的으로도 제일 발전되어 있었다.<sup>10)</sup> 따라서 西方人에 의한 선교 活動의 문호도 일찍 부터 開放되었다.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 많은 서구식 教育기관이 설립되었고, 많은 선각 계몽주의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外國 선교단과 함께 계몽주의活動과 함께 民族的 단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아랍人 사이에 기독교人과 이슬람교도인 사이에 宗教的인 충돌로 인해 民族的 단합을 갖지 못하였다.<sup>11)</sup>

이러한 宗教的 분열에 의한 아랍인 사이의 충돌은 시리아에 기독교 세력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개입과 시리아에서의 프랑세세력을 저지하려는 영국의 입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종교적 분열에 의해서 열강의 간섭을 받게 되자, 시리아의 知識人들은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어 계몽주의活動을 크게 강화하였고, 많은 學校를 설립하는 등 國民教育에 더 많은 努力을 경주함으로써, 愛鄉 運動이 활발히 展開되었다.<sup>12)</sup>

앞에서 살펴 본 무함마드·알리의 분리 운동은 個人的 權力장악을 위한 目的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와하비운동은 民族意識의 性格이 미약한 것이었음에 반해 시리아의 애향운동은 종교적 분열에 의한 열강의 간섭을 경험함으로써, 民族的 感情을 우위에 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무함마드·알리의 분리운동과 와하비운동 그리고, 시리아의 民族自覺운동은 아랍民族主義운동을 위한 民族的 自覺의 축적을 가져와 그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 2. 反오스만 民族獨立 운동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아랍人사이에 民族운동의 싹이 트

10) 김종표 op. cit., p. 224.

11) 서재만, op. cit., p. 61~62. 재인용

12) Ibid., p. 62. 재인용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知識階級이나, 軍將校를 中心으로 한 일부층에 불과하였고, 그 要求도 아랍語의 공용화 오스만·터어키 통치하에 있어서의 自治權 등이었다.<sup>13)</sup>

서구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흘러 나오는 民族독립과 民主主義등의 政治思想이 서구식 教育의 보급으로 아랍인의 自我意識이 점점 격화되었다.<sup>14)</sup> 그래서 오스만제국을 아랍인 국가와 터어키 국가로 분리·연방국가를 形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고, 1911년에는 青年아랍협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분리자치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랍의 독립과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1912년에는 民族自治를 요구하는 수많은 民族主義 政黨과 社會단체가 결성되었다.<sup>15)</sup>

그렇지만,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는 다수의 아랍·이슬람교도 지도자들은 오스만제국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들의 目的은 1913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아랍회의의 결의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아랍공동체는 오스만제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自治를 원하며, 오스만정부는 모든 오스만국민이 人種과 宗教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그러나 오스만제국이 제1차세계대전에 돌입하였을 때, 많은 아랍지도자들은 지금까지의 態度를 돌변하여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17)</sup>

제1차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빌헬름Ⅱ세는 연합국측에서 싸우는 이슬람교도는 칼리프의 뜻에 위임코져 터어키로 송환될 것이라는 기독교국으로서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新아랍政策을 선언했다. 또한 독일측에 가담하여 참

13) 김종표 *op. cit.*, p. 224.

14) 김정위, “중동제국과 민족주의”, 『외대』16, 외국어대학교, 1981, p. 68.

15) 이상두, “아랍民族主義란 무엇인가”, 『대학문화』 제6집, 서울시립대, 1983, p. 124.

16) 김정위, *op. cit.*, p. 67~68, 재인용

17) 김정위, “아랍민족주의의 특징과 한국”, 『광장』 6월호, 1982, p. 38.

가한 오스만제국도 聖戰에의 참전을 촉구하였고, 全世界 이슬람교도에 聖戰 포교를 내렸다. 이에 당황한 英國은 아랍인의 독립보장을 내세워 연합국측의 가담과 反오스만봉기를 사주하고 나섰다.<sup>18)</sup>

이와같이 아랍民族을 이용하려는 동맹국과 연합국간의 경쟁은 아랍民族主義者들을 新오스만세력과 反오스만세력으로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新오스만세력은 汎이슬람主義에 입각하여 西方帝國主義 외세를 거부하고 적어도 오스만제국의 파괴에는 반대하며, 오히려 터어키에 협력하거나 대 연합국투쟁에 참여하는 반면, 反오스만세력은 서방세력까지 포함한 모든 외세의 배경에서 후퇴하여 영국의 후원아래 反오스만봉기에 나섰다.<sup>19)</sup>

이집트주둔의 영국고등판관인 맥마흔이 터어키에 대해 아랍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란국경에서부터 페르시아만 以西까지 尙아랍지역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핫세인-맥마흔서한에 따라 맥카의 지배자인 핫세인이 1916년 6월 반란을 일으켰다.<sup>20)</sup>

이처럼, 핫세인을 中心으로 한 反오스만세력은 英國의 지원아래 新오스만세력을 물리침과 동시에 연합국과의 연합전선으로 全面戰에 참전하게 되면서, 反오스만봉기는 尙아랍 民族解放運動으로 發展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 오스만 제국과 협상국간의 무드로스(Mudros) 휴전조약이 체결될 때 까지 아랍地域 전역에서 오스만·독일군에 대항한 연합국전열에서 투쟁한 결과, 4세기간의 오스만제국의 지배로부터 尙아랍지역의 해방에 成功을 거두었다.<sup>21)</sup>

아랍民族의 오스만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은 비록 외세의 지원下에 얻어진 것이었으나 19세기 이후부터 축적되어 온 民族意識이 時代的 狀況과 結合한 結果 얻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아랍民族의 독립은 전쟁수행을 위해 아랍民族主義의 反터어키感情을 利用하려는 책략에 불과한 것으로 1차대전 종전後 서구세력에 의

18) 서제만, op. cit., p. 71

19) Ibid., p. 71, 재인용

21) 서제만, op. cit., p. 72~73 재인용



해 아랍地域의 분할統治가 結晶됨으로써,<sup>22)</sup> 아랍民族主義는 서구세력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反西方 운동의 性格을 띠게 된다.

### 3. 反西方 운동

제1차대전 終息과 더불어 아랍인은 오스만제국의 지배로 부터 해방되었으나 오스만제국으로 부터의 해방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의 目標, 즉 汎이슬람主義에 입각한 진정한 이슬람社會의 부활과 이를 기초로 한 독립아랍民族國家 建設의 成就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 戰後 問題의 처리과정에서 英·佛은 아랍民族의 독립국가 建設 약속을 어기고 아랍民族의 독립을 방해한 요인이 된 아랍지역을 분할·통치안을 통과시켜 아랍을 植民化함으로써, 아랍民族主義운동은 전쟁中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 西方과의 共同 협조를 깨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게 되었다.<sup>23)</sup>

아랍地域에 대해 유럽이 本格的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C부터라 할 수 있다. 18C는 앞서도 보았듯이 여러가지 서구思想이 아랍에 영향을 끼친 時代로 18C는 아랍편에서는 유럽을 再發見한 時代였고, 거꾸로 유럽쪽에서 아랍을 再評價했던 時代라고 할 수 있다. 18C, 19C 그리고 제1차대전이 發發할 때 까지 아랍에 관심을 갖고 소위 帝國主義, 植民主義를 進行시켰던 국가들은 英·佛·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러시아 그리고 독일 등이었다.<sup>24)</sup>

특히, 英國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의 실패로 오스만제국에 대해서 매우 영향력있는 위치를 誼占하게 되었고, 1869년 suez운하를 개설하고 1875년 이 會社를 장악함으로써 이집트를 지배하기 始作하였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反英感情이 이미 일고 있었다.<sup>25)</sup>

22) 이상두, *op. cit.*, p. 124.

23) 서재만, *op. cit.*, p. 76~77.

24) 김기우, "중동의 어제, 오늘, 내일", 「개척자」 21, 경상대, 1984, p. 189.

25) *Ibid.*, p. 190.

그러다가 제1차대전이 發發하면서 英國이 아랍의 獨立을 約束함으로써 이 집트에서의 反英感情은 점차 쇠퇴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16년 5월에 맥마흔-훗세인 서한에 위배되는 英·佛의 아랍地域 분할 협정인 사이크-피코트협정과 英國外相이었던 발포어가 유태인의 협조유도책으로 팔레스타인당에 유태인들의 조국수립을 약속한 「발포어 선언」 그리고, 1920년 연합국最高會議가 아랍人 거주지역을 신탁통치령으로 結晶하자, 아랍人은 政治的 獨立과 서구에 대한 反對투쟁으로 民族主義기발 아래 그 단결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sup>26)</sup> 특히, 러시아혁명과 윌슨대통령의 「民族自決主義」는 아랍民族主義者들의 獨立國家建設 의욕을 크게 고무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제1차대전 以後 아랍民族主義운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다. 제1차대전 以前까지는 이슬람宗教에 기반을 둔 宗教的 文化的 民族主義의 性格을 지녔으나, 서방 지배의 충격은 이슬람의 부활이라는 精神的 世界보다는 政治的 獨立에 더 집착하게 됨으로써 政治的 民族主義로 發展하였다. 특히, 아랍民族主義운동의 中心地였던 시리아와 레바논에서는 프랑스의 分割支配의 충격으로 아랍民族主義운동이 아랍民族의 統合과 政治的 獨立을 地上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와함께 아랍 각 지역에서 위임통치에서 벗어 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어, 1930년에 이락은 英國으로 부터 完全 독립을 승인받았으며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에서도 독립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어 2차대전이 종결되면서 서방세력으로 부터 독립하게 되었다.<sup>28)</sup>

### Ⅲ. 제2차대전 以後의 樣相

이제까지는 제1차대전 前後에 걸친 아랍民族主義의 樣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本章에서는 제2차대전 以後의 樣相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제2차대전후 中東의 아랍 국가는 대체로 政治的 獨立과 主權을 찾았다. 그

28) 서재만, op. cit., pp. 83~98 참조

러나, 아랍인의 결속인 宗教와 言語가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분리 요소인 社會·經濟的 關係, 地域 및 왕조간의 불화때문에 아랍 各國은 自己국 境과 분리·독립된 政治的 존재를 다지는데 열중하게 되었다.<sup>29)</sup>

위의 결과, 서구의 분할 통치 이후 생기게 된 民族의 분할이 고정화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아랍民族의 統一性이라는 전통의 파괴야말로 아랍民族의 存在가치의 상실이며, 모든 전통의 와해이기도 한 것이다.<sup>30)</sup>

그러므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아랍民族主義와 이슬람공동체에 바탕을 둔 아랍 統一의 理想이 아랍民族主義者들의 새로운 目標가 되었으며, 이 운동에 끊임없는 활력소를 주는 것은 아랍세계를 東西로 가르는 이스라엘의 건설이었다.<sup>31)</sup>

따라서, 2차대전 以後 아랍民主主義를 아랍 統一을 위한 民族統合운동과 아랍統一에 방해가 되는 시오니즘에 대한 反對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1. 民族統合 운동

아랍民族主義의 궁극적인 이상인 아랍국가의 통일을 위한 民族統合 운동은<sup>32)</sup> 독립된 하나의 政治체제하에 아랍民族이 再統一되어 아랍共同體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政治家들의 機能的 접근方法으로 연방안 또는 통합된 단일국가안이 대두 되었다.<sup>33)</sup>

제1단계 아랍통합운동으로 1942년 12월에 이라크수상인 누리파샤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반도 국가들을 제외한 아랍국가들로 構成되는 하나의 통일안인 “대시리아계획(The Great syria plan)”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이

29) 김정위, “아랍 민족주의 특징과 한국”, 「광장」 6월호, 1982. p. 39.

30) 서재만, *op. cit.*, p. 99

31) 김정위, “중동제국과 민족주의”, 「외대」 16, 외국어대학교, 1981, p. 68.

32) 김정위, “아랍 민족주의 특징과 한국”, 「광장」 6월호, 1982. p. 40.

33) 홍순남, *op. cit.*, p. 72

라,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sup>34)</sup> 요르단이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1945년에 결성된 아랍연맹에 의해 이들 독립된 아랍국가들이 하나의 共同體로서 形成되게 된다. 이 연맹은 自己들이 서로의 經濟·文化的인 협조를 目標로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같이 反아랍적인 국가에 대한 共同보조를 취해 나가기 위한 實質的 必要性에 의해 생긴 것이었다.<sup>35)</sup> 아랍연맹의 結成은 아랍民族主義와 아랍통일 운동이 同時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하겠다.<sup>36)</sup>

1948년 대이스라엘전쟁의 휴유로 民族統合論은 잠시 후퇴하였으나, 1952년 낡은 봉건 왕조를 타도하고,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은 가말 압둘 나세르(Gamal Abdul Nasser)에 의해 재등장하였다. 나세르는 新나세르 입장을 표방하는 시리아와 1958년 2월에 完全한 아랍統合에의 첫걸음으로써 이집트·시리아가 合邦하여 統一아랍共和國(United Arab Republic)이라는 국호를 갖는 국가로 된 것이다. 이 통일아랍공화국은 全아랍세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人口와 1/4의 면적을 가진 新生國家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이집트 두나라는 政治的으로는 立場이 같아서 統合하였으나, 地理的으로는 떨어져 不自然스러웠고, 지나친 나세르中心으로 시리아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집트의 中央집권하에 예측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자, 시리아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고, 1961년에는 시리아가 탈퇴해 버림으로써 統一아랍공화국은 와해되었다.<sup>37)</sup>

이런 통일아랍공화국의 와해는 나세르의 經濟統合政策이 시리아의 높은 生活수준을 이집트처럼 낮은 수준으로 퇴락시킬 것이고 점차 시리아의 經濟가 이집트로 예측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강력한 통합정책으로 시리아의 政治

34)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은 現在의 이스라엘지역을 말한다.

35) 사상계, "확대하는 나세르대 캠페인 주도권전", 1962. 10. p. 109.

36) 이상두, op. cit., p. 126.

37) 이상두, 「나세르와 아랍혁명」(서울: 태양문화사 1977), pp. 263~271.

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점등 많은 불만의 결과이긴 하나, 根本적으로는 이미 西方의 분리지배下에서 전통 社會의 파괴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서로 相異한 社會, 經濟的 構造와 이에 따른 다양한 政治的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아랍民族의 統合思想이 理想論이 아니며, 과거의 이슬람영광을 찾을 수 있는 可能性을 준 것으로 오늘날까지, 아랍통합운동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1958년 2월 이라크와 요르단도 통일아랍연방(The Arab Union Federation)을 결성하였으나, 이라크의 革命으로 이연방은 실패하였다. 이처럼 통일아랍공화국과 통일아랍연방이라는 아랍민족통합이 단명으로 끝났으나, 아랍민족주의자들은 아랍연맹을 통하여 또는 아랍국민에게 직접 아랍의 단결과 統合을 호소하는 등 강력한 汎아랍주의의 理想의 嚮배로 국가통합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 이집트에서 사다트의 등장과 1969년 리비아혁명으로 나세르의 강력한 지지자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등장하자, 1971년 다시금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연방안이 제기되어 아랍연방공화국(Federation of Arab Republics)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수차의 국가통합에 실패 경험을 지닌 이집트와 시리아에 비해 카다피의 강력한 統合체제 주장으로 역시 뜻은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戰後 아랍民族主義가 汎아랍主義를 표방하고 국가통합을 통한 民族의 再統一를 기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큰 성과는 없지만, 긍정적인 면도 찾아 볼 수 있다. 1950年代 UN에서는 아랍인의 집단투표행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UN대표권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기구나 회의에서의 단결력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우기 反이스라엘 투쟁에 있어서 아랍제국의 연합전선구축은 네차레에 걸친 中東全面戰을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치루게 되었고, 특히 1974년 아랍제국의 石油무기화에서 보여 준 단결력은 너무나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리고 아랍정상회담의 지속도 아랍民族의 단결의 한 징표이기도 한 것이다.<sup>39)</sup>

38) 서재만, *op. cit.*, p. 103.

39) 서재만, *op. cit.*, p. 104.

## 2. 反시오니즘 운동

원래, 中東地域의 아랍인과 유대인間에는 아무런 好惡의 國民感情은 없었고, 발포어宣言이 發表되던 당시까지만도 팔레스타인에 居住하는 60만의 아랍인과 5~6만의 유대인사이에는 특별한 相互 不信이나 敵意가 存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제1차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終結됨으로써, 발포어宣言은 1920년 산레모平和會議에서 國際的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宣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名目으로 팔레스타인은 英國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 그리하여, 유대인 移民이 인정되고 유대인移民이 大幅的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두 民族間에는 거의 必然的으로 깊숙한 憎惡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始作하였고, 1947년 영국이 팔레스타인問題를 UN에 제출한 결과 팔레스타인을 유태국가와 아랍국가로 분리한다는 분리안이 통과되었다.<sup>40)</sup>

이 분리안은 아랍국가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전국됨과 同時에 아랍제국의 공격이 시작됨으로써, 民族統合이라는 취지아래 反시오니즘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유대인들로서는 2천년을 이어 온 民族的 숙원이요, 그들의 오랜 努力의 結果인 “祖國건설”이 약속된 감격스러운 순간이 었으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로서는 2천년동안 살아 온 祖上傳來의 땅을 그들에게 寄食해 오며 세력을 키워 온 外來人에게 하루 아침에 강탈당하는 순간 이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어떠한 方法으로든 저지하려 했고,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도 결속하게 된 것이다.<sup>41)</sup>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사우디 아라비아·이라크 등 6개국 아랍 연맹군이 아랍民族의 단결과 反시오니즘 투쟁을 내세워 對이스라엘 全面戰에 参전했다. 이렇게 해서 아랍民族의 反시오니즘투쟁은 아랍全域으로 확대된

40) 김희상, 「중동전쟁」(서울: 일신사 1982) pp. 22~30

41) Ibid., pp. 40~50 참조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UN결의에 의해 팔레스타인땅으로 지정된 領土를 점령하여 全國土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後, 1950년 1월에는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國際化로 規定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宣稱하였고, 이를 계기로 國地戰이 빈발하였다.<sup>42)</sup>

1956년 7월 이집트가 수에즈운하의 國有化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제2차 중동전쟁이 發發하였다. 영국 프랑스의 대이집트침공에 편승한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의 침공은 아랍民族의 反시오니즘과 反서방을 同一時하는 觀念을 고착시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대이집트 무기 판매와 더불어 아랍측의 지지에 이어 소련은 시리아, 이라크에도 대규모의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랍인의 反시오니즘, 反西方感情은 한층 고조되어 갔다.

특히, 이집트의 나세르의 등장으로 나세르의 汎아랍주의를 표방한 이스라엘 타도, 합성은 아랍인의 反시오니즘 感情을 폭발케 하여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전쟁에서도 본토의 5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확장을 가져오는 승리를 얻었고, 반면에 2차대전후 줄곧 아랍의 맹주역을 자처하면서 세차례에 걸친 對이스라엘전쟁을 주도하여 왔던 이집트는 不利한 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10월 또다시 先地回復을 내걸고 전쟁에 호소하게 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이 發發하자, 미·소는 즉각 이스라엘과 아랍측에 원조를 재개하여 事態를 악화시켰으나, 아랍 산유국 石油무기화에 굴복한 西方과 이스라엘의 후퇴로 정전되었다.

이와같이 아랍民族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反시오니즘투쟁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反시오니즘 투쟁은 아랍民族의 最大의 共同투쟁 目標가 됨으로써 아랍民族의 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실로 아랍제국은 아랍民族의 統一을 國家統合의 과정에서 많은 실패의 先禮를 남겼으나, 反시오니즘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력을 과시하여 갔던 것이다.

42) 서재만, op. cit., pp. 105~106. 재인용

그러나 아랍民族의 反시오니즘 투쟁에서의 패배는 아랍民族의 理想이며, 堯원인 民族的 統合과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 제1차 중동전쟁의 패배로 아랍民族主義운동의 개혁화가 일어나, 아랍民族은 보수와 개혁으로 분열되었다. 제2차에 이어 3차 중동전쟁에서도 아랍국가들이 패배하게 되자, 팔레스타인 아랍民族은 汎아랍주의에서 탈퇴하여, 팔레스타인 民族主義民族主義를 표방하게 되었다. 또한 배타적이고 무력적인 反시오니즘 투쟁을 포기하고 이집트의 사타르가 이스라엘과 單獨平和협정 체결로 인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아랍은 분열되고, 反시오니즘도 차츰 식어져 버렸다.<sup>43)</sup>

이는 아랍各國의 民族意識이나 공동체 意識보다는 自國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實利主義원칙이 적용된 結果라 하겠으며, 對이스라엘패배는 아랍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 IV. 아랍民族主義의 特徵

3章까지 아랍民族主義의 展開樣相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아랍民族主義의 民族意識의 흐름이었다.

本章에서는 아랍民族主義의 特徵을 考察해 봄으로써 아랍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特徵의 考察을 위해서 제3세계 民族主義의 특징도 함께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서구民族主義는 안으로는 民族의 統一과 獨立, 市民的 自由와 民主改革의 추진력이 되었으나, 밖으로는 帝國主義, 植民主義로 發展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3세계 民族主義도 서구民族主義처럼 안으로는 民族의 統一과 政治發展, 諸社會改革의 추진력이 된 점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으나, 서구民族主義처럼 帝國主義로 發展하지 않고, 國民的 統合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點에서는 根本的으로 다르다.<sup>44)</sup>

43) Ibid., pp.105~110, 참조하였음.

44) 이상두, op. cit., p.218.



즉, 제3세계 民族主義는 첫째, 植民主義와 帝國主義에 대한 반항, 둘째, 민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社會的, 經濟的 반항, 셋째, 西洋에 대한 東洋의 반항, 즉 人種的 반항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제3세계 諸國의 民族主義 特徵은 다음과 같다.<sup>46)</sup>

아프리카 民族主義는 民族 構成 要件의 결여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的 체험의 結果 汎아프리카主義 운동을 통한 아프리카的 人間의 구현을 目標로 함으로써 民族主義라기 보다 강한 人種主義的 性格을 특수성으로 한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民族主義는 원주민 인디안, 수입 된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서방인 사이에 뿌리 내린 Indo-American Afro-American, Ibero-American 混血社會와 그위에 交織된 인디안文化, 아프리카文化, 西方文化의 混雜으로 실로 多樣性에 기초한 라틴 아프리카主義로 대표되며, 反美的 경향의 좌경 社會主義 경향을 갖는다. 아시아 民族主義는 人種, 言語, 宗教 그리고 地理의 多樣性과 아울러 種族性의 결여로 各 民族 단위의 民族 解放 운동이나 民族 自決 운동은 활발하나, 地域的 統攝에 있어서는 대단히 弛緩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sup>47)</sup>

反面에, 아랍 民族主義는 汎이슬람主義와 汎아랍主義를 그들의 民族主義 운동의 中核으로 하는 地域 民族主義로, 비록 그 思想 체계가 모호하긴 하나, 과거에 대한 자부심과 未來에 대한 生活 수준의 向上을 그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아랍 民族主義는 二元性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그 特徵을 찾아 볼 수가 있겠다.

즉, 아랍 民族主義는 汎아랍主義라는 世俗的인 측면과 汎이슬람主義라는 宗教的인 측면을 同時에 가지고 있다. 前者의 경우는 아랍 民族主義운동에 아랍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가한 事實에서도 볼 수 있고, 또 國際政治 무대에서 낫 세르의 이집트는 이슬람國家인 파키스탄보다 힌두국가인 印度를 지지한 사실

45) Ibid., p. 128 재인용

46) 서재만, op. cit., p. 48, 재인용

47) Ibid., p. 48.

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宗教的인 측면은 이슬람이 아랍民族主義의 主要 本質에 속하고 있다는 事實과 이를 강조하는 點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랍民族主義가 분리되는 것은 歷史的으로 볼 때는 同一時되어야 하는 것이나, 現實的으로 볼 때는 모든 아랍인이 다 이슬람교도가 아니며, 한편, 아랍기독교도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性格을 띤 아랍의 民族的·言語的 遺産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전통적인 宗教의 바탕 대신에 강력한 民族感情의 바탕위에 國家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sup>48)</sup>

그러나, 世俗的인 측면은 超國家的인 이슬람의 理想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宗教的인 面은 아랍국가와 非아랍국가를 갈라 놓게 되었으며, 民族主義者들은 이슬람教徒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아랍人을 다 규합하고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反面에 이슬람主義者는 아랍, 非아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슬람教 信者의 世界的인 단합을 目標로 한다고 하여 서로 對立的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代表的인 실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란-이락 전쟁”이라 하겠다.

非아랍 이슬람국인 이란은 이슬람국가의 단결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세계에서 외세를 몰아 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國家의 외세의존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理論下에 1979년 호메이니翁을 中心으로 이슬람혁명을 成功시켰다.

이란의 이슬람정권의 눈에는 이슬람국가의 단결이 實現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굴욕적인 패배를 여러 번 맛보고 있는 理由는 바로 이슬람국가의 지배계층이 개혁이란 허울 아래 전통적 이슬람 政治 체제를 뺄고, 서구식 정치 체제와 가치 觀念을 實質的으로 모방하는데 급급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에서의 이슬람혁명이 成功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혁명 수출의 적격지로 이락을 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락의 집권당인 바아트(Baath)당은 시대착오적인 宗教 아랍民族主義를 내세워 非아랍族인 이란族의 침략에 對항해야 한다는 主張下에 맞서게 되었다.

48) 김정위, op. cit., pp. 39~40.

그리하여, 이락-이란 전쟁은 現在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쟁의 장기화는 이슬람세계가 분열되었을 뿐 아니라 대이스라엘共同 전선이 무너져 1982년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침공을 유발하게 되었고, 때문에 이슬람국가들은 양국에 분쟁의 平和的 해결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별 효과는 없다.<sup>49)</sup>

결국, 아랍民族主義는 汎이슬람主義와 汎아랍주의를 中心으로 과거의 이슬람을 바탕으로 民族共同體의 形成을 目標로 하였으나, 그 二元性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랍세계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 V. 結

지금까지, 아랍民族主義의 展開過程과 特徵을 考察해 봄에 있어서, 제1차 대전 前後의 樣相과 제2차대전 後의 樣相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 아랍民族主義의 特徵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內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랍民族은 16C 以後 오스만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民族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6C 以後 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서구 文明 특히 民族主義 思想이 流入되면서 아랍民族主義 形成을 위한 환경이 造成되었다.

초기의 아랍民族主義운동은 Suez以東과 以西에서 서로 다른 樣態를 보인다. 스웨즈以西에서는 反오스만 분리운동으로 이집트의 무함마드·알리가 中心이 되어 近代化 改革 事業을 펴는 등 적극적으로 서구식 教育과 技術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民族의 자부심과 자각을 일깨웠고,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집트에 대한 간섭이 약해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事實상의 獨立을 인정 받는 등 아랍民族主義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Suez 以東에서는 宗教的 각성 운동인 와하비 운동과 시리아를 中心으로 한 愛鄉 운동을 통해서 汎이슬람主義에 입각한 民族의 統一性和 서구세

49) 김정위, "중동의 현황과 전망" 『승전』26, 1985, pp. 137~138.

## 아랍民族主義의 展開過程과 特徵에 관한 考察

력의 개입에 대해 계몽운동과 教育의 실시로 자신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이러한 초기의 아랍民族主義 운동은 비록 民族的 意識에 바탕을 둔 민중 운동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아랍民族에게 새로운 民族自覺 意識을 심어 줌으로써, 아랍民族主義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 民族自覺 意識은 제1차대전을 겪으면서 민중 속에 파고 들게 되고,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反오스만 독립 운동으로 전환이 된다. 독립을 成就하기 위해서 아랍民族은 동맹군측에 가담한 오스만제국과는 달리 연합군측의 지원 아래 오스만제국에 봉기하여 마침내는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지만 종전後 帝國主義 세력에 의해 분할되어 위임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友邦이었던 서구에 대해 적의를 품게 되고, 民族自決主義 원칙 등의 영향으로 西方勢力으로부터 獨立하려는 反西方 운동이 시리아와 이집트, 레바논을 中心으로 發生하게 되고, 위임통치하에서의 투쟁으로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독립을 成就하게 된다. 그러나, 위임통치時의 분할로 인해서 그동안 이슬람 共同體(umma)를 中心으로 단합되었던 民族이 분할되어 버려, 2차대전後 아랍民族主義者들은 民族主義의 最高 目標를 아랍民族의 統合으로 삼게 되었고, 이 目標 달성에 저해가 된 이스라엘 건국은 아랍을 反서오스즘 아래 단합을 하게 된 계기가 된다.

그러나, 2차대전後 아랍 세계는 民族 統合을 위한 연방안 시도가 계속 실패하였고, 이스라엘과의 대전에서도 패배함으로써, 汎이슬람主義와 汎아랍主義라는 二元性을 지닌 아랍民族主義가 분열되어 버린 위기를 맞게 된다. 汎아랍主義에 의해서 非아랍국과 아랍國으로 분열됨으로 인해 아랍 統一이라는 아랍民族主義의 地上 目標 達成에 새로운 問題點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랍民族主義는 아랍統一이라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랍主義와 世俗主義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主義와 世界主義에 바탕을 둘 것인가, 혹은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結晶하여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單行本

1. 김희상, 「중동전쟁」(서울: 일신사, 1982).
2. 이상두, 「낫세르와 혁명」(서울: 태양문화사, 1977).
3. 정항희, 「국가와 민족주의」(서울: 법문사, 1981).
4. 중동문제연구소편, 「제3세계와 중동정치, 경제」(서울: 박영사), 1984.

### ○論文

5. 김기우, “중동의 어제 오늘 내일”, 「개척자」21, 경상대학교, 1984.
6. 김용선, 김정사, “아랍인의 意識構造”, 「외대논문집」제12집, 1979.
7. 김정위, “中東諸國과 民族主義”, 「외대」16, 외국어대학교, 1981.
8. \_\_\_\_\_, “中東의 現況과 전망”, 「승전」26, 승전대, 1985.
9. \_\_\_\_\_, “아랍民族主義의 特徵과 韓國”, 「광장」6월호, 1982.
10. 김종표, “아랍民族主義의 形成과 發展”, 「법학논총」11집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1977.
11. 이상두, “아랍民族主義란 무엇인가”, 「대학문화」6집, 서울시립대, 1983.
12. 서재만, “아랍民族主義”, 「제3세계연구(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3. 홍순남, “아랍民族主義와 統合思想”, 「단원」14, 단국대학교, 1984.
14. 유정열, “아랍政治의 理想과 現實”, 「외대논문집」제12집, 1979.
15. 「사상계」, “확대하는 낫세르 對 캣셈주도권전”, 1962. 10.